

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김원중 · 유정희 부위원장님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규남 의원
입니다.

□ 어린 나이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
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
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‘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
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
드리겠습니다.

□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,774개 중 82.3%(3,930개)가
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으로 아이돌 발굴·육성·활동 등이
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
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무합니다.

- 빠르면 초등학생, 1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아이돌 연습생 특성상 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신체적·정신적 인지와 가치관 형성도 이전에 상업적 기준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.

- 이에 본 조례안은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, 성희롱·성폭력과 체중감량·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- 특히, 국가에서조차 간과한 ‘청소년 연습생 중도 포기자’에 대한 맞춤형 심리평가·상담 및 진로상담을 지원해 데뷔라는 좁은 관문 이후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.

- K-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,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권익 보호 근거를 마련해 데뷔 여부를 떠나 종국엔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.

□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